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3권 10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 값없는 칭의

제3권 제12장 1-8절 + 제13장 1-5절 (생명의말씀사 세계기독교고전판)

? 나 정도면 꽤 괜찮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도 그걸로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흐름 한눈에

칼빈은 앞 장(3권 11장)에서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했다. 이번에는 그 가르침이 왜 절실한지 보여 주려고 질문의 무대부터 바꾼다. 의를 따지는 곳은 사람의 법정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것이다(12장 1-3절). 그 앞에 서면 남과 비교해서 얻은 자신감은 태양 앞에서 눈이 멀듯 무너지고, 양심이 숨겨 둔 것까지 다 드러난다. 그래서 자기 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겸손, 곧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너지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다(4-8절). 13장에서는 값없는 칭의(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는 일)가 지켜 주는 두 가지를 정리한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양심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평안해야 한다. 행위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이 둘이 함께 무너진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받기만 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절별 정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위엄과 칭의. 1-3

12장 1. 하늘의 심판주께서 지니신 의의 표준

해서는 안 된다.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일수록 실은 하나님의 공의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공의는 흠 하나 없는 완전함이 아니면 받아 주지 않는데, 그런 의는 사람에게서 발견된 적이 없다. 수도원 그늘에서 '행위의 가치'를 말로 따지기는 쉽지만,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서는 일은 농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심판주를 상상으로 그리지 말고 성경, 특히 욥기가 그리는 대로 바라보라고 한다. 칼빈은 욥기가 '의'를 율법 준수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말한다고 본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다 해도 그 하늘의 기준은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높은 기준은 접어 두더라도, 기록된 율법이 선언하는 저주만 보아도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둔한 것이다. 결론은 이렇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엎드리지 않으면 칭의에 대한 논의 전체가 헛것이 된다.

1. 의를 따지는 곳은 사람 법정이 아닌 하늘 법정
2. 내 잣대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못 맞춘다
3. 성경이 그리는 심판주는 천사도 못 견딜 만큼 순결하다
4. 율법을 다 지켜도 하늘의 기준은 그보다 높다
5. 기록된 율법의 저주만으로도 떨어야 정상이다
6. 엎드리지 않으면 칭의 논의 자체가 헛것이다

욥기 3:9 (원문 표기)

심판주의 광채 앞에서 별이 어두워진다는 묘사 (작가에게 참고 있음)

욥기 9:5-6, 욥기 5:13, 욥기 25:5, 욥기 4:18

산을 녹이고 지혜자를 꺾으며 천사도 감당 못 하는 심판주의 모습

욥기 9:5-6 ⁵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⁶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욥기 5:13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욥기 25:5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욥기 4:18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욥기 9:20 (참조)

죄 지은 자를 무죄로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묘사

욥기 9:20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신명기 32:22, 욥기 26:6 (참조)

그분의 진노가 깊은 곳까지 태운다는 묘사

신명기 32:22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욥기 26:6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이사야 33:14-15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랴?” 심판대 앞에 설 자격을 묻는 질문

¹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¹⁵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시편 130:3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면 누가 서리이까” 아무도 서지 못한다는 답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욥기 4:17-20

¹⁷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¹⁸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¹⁹하물며 흙 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²⁰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욥기 15:15-16

하늘도 부정하게 보시니 악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¹⁵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¹⁶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갈라디아서 3:10 (신명기 27:26 인용)

율법을 모두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전면적 선언

12장 2.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

사람끼리만 비교하면 누구나 '나도 남들이 무시 못 할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눈을 하나님께 돌리면 그 자신감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칼빈의 비유는 이렇다. 가까운 물건은 잘 보던 눈도 태양을 보면 빛을 못 견디고 멀어 버린다. 남보다 낫다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운명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정된다.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 (누가복음 16:15)을 그대로 듣게 된다. 성령께 배운 하나님의 종들은 오히려 “주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다. 바울조차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어도 그것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죄 천 가지를 조사하면 그중 하나도 통과하지 못한다.

1. 비교하면 누구나 자기를 높이게 된다
2. 해를 보면 눈이 멀듯, 하나님 앞에선 무너진다

4. 사람이 높이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실 수 있다

5. 바울도 '양심이 깨끗함'을 근거로 삼지 않았다

누가복음 16:15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아신다고 경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시편 143:2

주의 눈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성도의 고백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 9:2-3

하나님과 따지면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 못 한다

²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³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4:4

자책할 것이 없어도 그것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는 바울의 고백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12장 3. 아우구스티누스와 베르나르의 증언

칼빈은 이 가르침이 새로 지어낸 것이 아님을 보이려고 교회의 경건한 저자 두

화해시키는 분) 그리스도라고 했다. 칼빈은 '유일한'이라는 단어를 짚는다. 다른 소망이 없다면 행위를 의지할 자리도 없다는 것이다. 12세기 프랑스 클레르보의 수도원장 베르나르도 같은 말을 한다. 그에 따르면 연약한 자가 기댈 곳은 주님의 상처뿐이고, 큰 죄로 양심이 어지러워도 그 상처를 기억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자비가 나의 공로”라고 했고, 모든 영광을 내려놓는 이유를 '내 것이 아닌 것을 흠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베르나르가 선행을 '공로'(상을 받을 자격으로 쳐주는 선행)라고 부른 것은 당시의 말버릇이었다. 그가 실제로 말하려던 것은,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참된 공로이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일하신다는 역설이다. 이 말은 은혜를 업신여기며 마음대로 죄짓는 외식자(겉만 꾸미는 위선자)에게 경고하려는 것이었다.

1. 성경만이 아니라 교회 전통도 같은 말을 한다
2. 아우구스티누스: 소망은 '오직' 중보자뿐
3. 베르나르: 기댈 곳은 주님의 상처뿐
4. “주님의 자비가 나의 공로”라는 역설
5. '공로'라는 단어는 시대의 말버릇일 뿐이다

디모데전서 2:5-6 (참조)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유일한 중보자, 대속물 그리스도'의 배경

디모데전서 2:5-6 ⁵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⁶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에스겔 36:22, 에스겔 36:32

하나님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 행하신다는 베르나르의 근거

에스겔 36:22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에스겔 36:32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비판이 행위에 대한 자랑을 제거시켜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인도함. 4-8

12장 4.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인간의 모든 허세가 무너짐

양심이 깨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앞 절에서 말한 '주님의 자비에 기대는 것'이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피난처임을 알게 된다. 밤하늘의 별이 해가 뜨면 빛을 잃듯, 사람에게서 드물게 보이는 순결도 하나님의 순결 앞에서는 사라진다. 하나님의 심사는 마음 깊이 숨긴 생각까지 꿰뚫는다. 그래서 잊어버린 것까지 다 털어놓게 되고, 우리를 꺾어 죄짓게 한 마귀도 그 죄들을 들고 우리를 몰아붙일 것이다. 지금 높이 평가받는 선행을 내보여도 소용없다. 그 자리에서는 의지(속마음)가 깨끗한지를 묻기 때문이다. 여기서 무너지는 외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 사람 앞에서만 잘난 척하는 외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며 스스로를 추켜세우는 외식이다.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세운 의는 꿈속의 재산처럼 깨는 순간 사라진다. 사람이 의라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이고, 자랑이 치욕이 된다.

1. 별이 해 앞에서 빛을 잃듯 사람의 순결도 그렇다
2. 하나님은 숨긴 생각까지 드러내신다
3. 겉으로 보이는 선행은 거기서 소용없다
4. 남을 속이는 위선, 나를 속이는 위선 둘 다 무너진다
5. 심판을 잊고 세운 의는 꿈속 재산과 같다

고린도전서 4:5

주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과 마음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근거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12장 5.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심으로 나를 살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본 뒤에는 시선을 내려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아야 한다. 이때 눈먼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에게 너그러운 경향(자기 탐닉)이 있는데 아무도 이것을 경계하지 않는다. 잠언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바르고 깨끗해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착각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같은 구절이 덧붙이듯 주께서는 마음을 저울에 다신다. 그래서 양심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불러내야 숨은 부패가 드러난다. 이사야 53:6의 탄식(“우리는 다 양 같아서”)은 한 시대만이 아니라 구속받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이 자기 점검은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교만이 꺾여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기 때문이다.

1.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에게 너그럽다
2. 내 눈에 깨끗해도 하나님은 마음을 다신다
3. 양심을 심판대 앞에 세워야 부패가 드러난다
4. 놀랄 만큼 살펴야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다
5.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 21:2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정직하다: 자기 착각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께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2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도 여호와께서 심령을 감찰하신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욥기 25:4-6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사람의 본래 처지

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⁵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⁶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욥기 15:16

악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욥기 14:4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낼 자가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 9:20

내가 의로워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한다: 정직한 자기 점검의 결과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사야 53:6

모두 양처럼 제 길로 갔다: 모든 시대의 사람에게 해당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5:5 야고보서 4:6 (잠언 3:34 참조)

베드로전서 5: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12장 6.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칼빈은 '겸손'의 뜻을 바로잡는다. 내게 아직 뭔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의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가르쳐 온 사람들은 해로운 위선을 가르친 것이다. 속으로 느끼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편 18:27에서 칼빈은 두 가지를 끌어낸다. 첫째,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둘째, 겸손은 남에게 무례하지 않은 '점잖은 태도'가 아니고, 내 권리를 하나님께 조금 양보해 드리는 것도 아니다. 겸손은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 마음이 진짜로 무너진 상태다. 스바냐와 이사야도 겸손한 자를 '자기 가난을 알고 괴로워하며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로 그린다. '통회'(마음이 찢어지듯 아파하는 회개)는 마음의 상처로 엎드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된다.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추신다.

1. 내게 뭔가 남았다고 여기면 겸손이 아니다
2. '낮아지되 내 의도 조금 가치 있다'는 위선이다
3. 겸손은 매너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상태다
4. 하나님께 권리를 '양보'하는 게 아니다
5. 통회는 엎드려 못 일어나는 마음이다

시편 18:27

곤고한 자는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겸손이 구원의 문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스바냐 3:11-12

11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 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12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와 이름의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사야 66:2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말씀에 떠는 자를 돌보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 57:15

높으신 하나님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며 소생시키신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12장 7.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영접하심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비유로 겸손을 그려 주셨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다. 세리가 멀리 서서 눈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한 것은 연기가 아니라 속마음에서 나온 표현이었다. 칼빈이 주목하는 점이 있다. 바리새인도 “감사합니다” 하며 자기 의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겉으로는 인정했다. 그런데도 자기가 의롭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반면 세리는 자기 불의를 인정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 자기 가치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서 비워져야 하나님의 긍휼(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마음이 자기 가치로 차 있으면 하나님께 문을 닫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명 자체가 가난한 자, 마음 상한

2. 바리새인은 '감사'까지 했지만 배척받았다
3. 이유: 자기가 의롭다고 확신했기 때문
4. 자기 가치로 찬 마음은 은혜에 문을 닫는다
5.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누가복음 18:13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세리: 참된 겸손의 그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11-12

감사하면서도 자기 의를 늘어놓는 바리새인

¹¹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¹²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누가복음 18:14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는 판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61:1-3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슬퍼하는 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명

¹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²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를 초청하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9:13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2장 8.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몰아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들으려면 두 가지를 버려야 한다. 하나는 교만이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내게 있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에서 나온다. 다른 하나는 안일한 자기만족이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다. 죄의 달콤함에 취해 심판도 생각하지 않고 긍휼도 바라지 않는 상태다. 칼빈은 자기 신뢰를 버리는 것만큼 이 나태도 흔들려 깨워야 그리스도께 곧장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자기 안에서 가라앉고 절망해 봐야 그리스도 안에서 올라가고 위로받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공로를 잊을 때 그리스도의 선물을 누린다고 했다. 베르나르는 교만한 자를 창으로 들어온 빛을 받으면서 자기가 빛을 낸다고 떠드는 방의 벽에 비유했다. 칼빈은 원칙 하나로 정리한다. 자기를 철저히 비운 사람이 긍휼의 열매를 누릴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때 치우라는 것은 '진짜 사람의 의'가 아니라 '의를 닮은 헛것'이다. 참된 의는 애초에 사람에게 없기 때문이다.

1. 버릴 것 둘: 교만, 그리고 안일한 자기만족
2. 행위 신앙이 없어도 영적 나태는 있을 수 있다

4. 빛을 받는 벽이 빛을 낸다고 떠드는 꼴
5. 자기를 비운 자가 긍휼을 누릴 준비가 된다

(이 절에는 직접 인용 없음)

앞 절 마태복음 11:28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조건을 정리하는 절

“우리 자신을 깊이 불신하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향한 모자람 없는 신뢰가 절대로 생기지를 않는다.”

13장 1.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함

13장에서 칼빈은 값없는 칭의에서 불잡을 두 가지를 내세운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지지 않아야 한다. 둘째,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평안해야 한다. 이 절은 첫째를 다룬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주시는 목적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그 의로우심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데서 드러난다. 곧 하나님만 의로운 분으로 높아지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의를 선물로 주셔야 그분의 의가 온전히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입을 막으려” 하신다. 사람이 자기변호로 할 말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줄기 때문이다. 에스겔은 우리 불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가르친다. 예레미야와 바울은 지혜, 힘,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한다. 구원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1. 칭의에서 지킬 두 가지: 하나님 영광, 양심 평안
2.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의롭다 하시는 분
3.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실 때 의가 드러난다
4. 내가 할 말이 남으면 하나님 영광이 줄어든다
5.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26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19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에스겔 20:43-44

자기 악을 미워하며 기억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안다

⁴³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⁴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23-24

지혜, 용맹, 부를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²³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²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구원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에게서 오니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3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13장 2.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행위임

자기 자랑을 완전히 벗어나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랑하는 것이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고 말한다. 의롭다 함을 받는 목적이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 바로 앞 절은 자랑의 내용까지 알려 준다.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 칼빈은 이 고백이 입으로 하는 겸손한 척에 그치지 않도록 맹세로 확증하라고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런 반론도 있다. 교만하지만 않으면 내 의로움을 인정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답한다. 자기를 그렇게 보면 반드시 자기를 신뢰하게 되고, 자기를 신뢰하면 반드시 자랑하게 된다. 바울(에베소서)과 베드로도 구원의 목적을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자랑을 막는 데 둔다. 의의 부스러기 하나라도 내 몫으로 챙기면 그만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1. 내 자랑을 벗어나 주 안에서 자랑한다
2. 나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랑이다
3. 고백은 겸손한 '척'이 아니라 맹세로 확증해야 한다
4. 나를 의롭게 보면 신뢰로, 신뢰는 자랑으로 간다
5. 의의 부스러기 하나도 내 몫으로 챙기지 마라

로마서 3:19 (참조)

자랑할 구실이 없어져야 세상이 하나님께 굴복한다

로마서 3: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이사야 45:25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한다: 칭의의 목적은 주 안의 자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 45:24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 자랑의 내용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로마서 3:26 (참조)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

로마서 3: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6

구원은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2:8-9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은 선물이니 누구도 자랑 못 한다

⁸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⁹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베드로전서 2:9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성도요 만민에게서 흠 없는 백성이요 이 모든 것을 행함으로 너희의 거룩한 행실과

13장 3. 자기의 의를 바라보아서는 양심의 평안을 얻을 수 없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이다. 양심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음을 아는 것이다. 잠언 20:9의 질문처럼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가장 훌륭한 사람도 양심 속에서 자기 행위를 살피면 정죄받을 이유만 가득 보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은 확실한 평안을 누리든지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히든지 둘 중 하나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영혼을 붙들어 줄 의가 아니면 의를 논해도 소용이 없다. 바울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깨진다고 말한다(로마서 4:14). 이 절은 그 첫 번째 결과를 다룬다. 약속이 율법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면, 아무도 율법을 다 채웠다고 확신할 수 없으니 약속을 붙잡을 수가 없다. 위선자는 자기에게 아첨하며 버티지만, 정직하게 자신을 보는 신자는 의심을 거쳐 절망에 이른다. 행위에 근거한 믿음은 이렇게 무너진다. 참된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디딜 곳이 있는 확신이다.

1. 평안의 유일한 길: 의가 값없는 선물임을 아는 것
2. 행위로 나를 보면 정죄 이유만 보인다
3. 하나님 앞에선 확실한 평안 아니면 공포다
4. 율법이 조건이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
5. 정직한 사람일수록 행위 위에선 절망한다

잠언 20:9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고 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음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로마서 4:14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파기된다

파기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2:5, 고린도후서 13:4 (참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디딜 곳이 있다

고린도전서 2: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후서 13:4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13장 4. 참된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데서 얻어짐

로마서 4:14의 두 번째 결과는 '약속이 깨진다'는 것이다. 약속이 우리 공로를 조건으로 한다면 우리가 자격을 갖추는 날은 영영 오지 않는다. 이것은 첫 번째 결과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 약속은 믿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므로, 믿음이 넘어지면 약속도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상속이 믿음으로 되는 것은 약속을 은혜 위에 세우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공훈과 신실하심은 한 끈으로 묶여 있어서, 공훈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다윗도 말씀대로 구원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공훈을 구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훈과 맹세에 근거하므로 확실하다고 했다. 베르나르는 '하나님이 할 수 있으신 건 알겠는데 나를 원하실까?'라는 의심에 이렇게 답한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값없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다. 칼빈의 결론은 이렇다. 의가 우리에게서 떠나든지, 행위가 빠지든지 둘 중 하나다. 그러니 오직 믿음이다. 믿음은 사람의 가치에서 눈을 돌리고 약속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스가랴의 예언처럼 죄가 먼저 사해져야 참 평안이 온다.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 '우리의 화평'이라 부르는 이유도 그분의 희생 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단번에 풀었기 때문이다.

1. 공로가 조건이면 자격 갖추 날은 오지 않는다

3. 긍휼로 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신다
4. 의가 떠나든지 행위가 빠지든지 둘 중 하나
5.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과 속죄에서 온다

로마서 4:16 (원문에 장절 표기 없음, 해당 구절을 풀어 씀)

상속이 믿음으로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게 하려는 것

시편 119:76

주의 긍휼이 임하게 하소서: 약속의 근원은 긍휼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마태복음 19:25-26

사람으로는 못 하나 하나님은 다 하신다: 베르나르의 위로

²⁵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²⁶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전도서 9:1, 로마서 11:34 (이사야 40:13 참조)

'하나님이 나를 원하실까' 하는 의심의 표현

전도서 9:1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 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로마서 8:16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스가랴 3:9-10

⁹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¹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9:6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에베소서 2:14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3장 5. 믿음과 칭의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로마서 5:1)고 말한다. 그리고 그 확신의 근원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로마서 5:5)이라고 밝힌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확신 없이는 평안도 없다는 뜻이다. 그 피난처에 이르기 전에는 작은 바람에도 떨지만, 주님이 목자이심을 알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담대하다. 반대 입장이 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성령으로 새로워져 실제로 의롭게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다. 칼빈은 그들이 은혜의 맛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아빠’에 해당하는 친근한 부름)라 부르는 기도도 모른다고 비판한다. 중생(성령으로 새로 태어나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은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늘 불완전하다. 그래서 거기에 기대면 의심할 이유가 끝없이 생긴다. 해결책은 하나다. 천국 소망의 유일한 근거가 그리스도의 무에 전복당한 가엾은 이적반노 데 있다 그 한심한

것이다. 칭의에서 믿음은 순전히 받는 쪽이다. 하나님께 무엇을 가져가 사랑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받을 뿐이다.

1. 의롭다 함의 확신이 있어야 양심이 평안하다
2. 확신의 근원은 성령이 부어 주신 하나님 사랑
3. 중생은 이 땅에서 늘 불완전하다
4. 그래서 중생은 평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5. 칭의에서 믿음은 바치지 않고 받기만 한다

로마서 5:1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5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 확신의 근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8:35, 로마서 8:39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성도의 확신

로마서 8: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로마서 8: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시편 23:1, 시편 23:4

목자이신 주와 함께라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렵지 않다

시편 23:1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사편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갈라디아서 4:6, 로마서 8:15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참 믿음의 표지

갈라디아서 4: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에베소서 3:12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직 우리에게 결핍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단지 받는 것이다.”

오해와 반론

용어

칭의(稱義)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죄인을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는 일.

값없는

우리가 대가나 자격을 내지 않고 순전히 선물로 받는다는 뜻.

상을 받을 자격으로 쳐주는 선행. 베르나르 시대에는 '선행'을 넓게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다.

외식(外飾)

겉만 꾸미는 위선. 칼빈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위선'도 포함한다.

금휼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

통회(痛悔)

죄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듯 아파하며 앞드리는 회개.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화해시키는 분, 곧 그리스도.

중생(重生)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 새 삶이 시작되는 것. 이 땅에서는 늘 진행 중이고 불완전하다.

속죄·희생 제사

그리스도가 죄의 값을 대신 치러 하나님의 진노를 푸신 일.

수동적 믿음

칭의에서 믿음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받기만 한다는 뜻. 게으름과는 다르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칭의는 사람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따지는 문제이고, 그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 그래서 겸손은 매너가 아니라 자기 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준비다

- 행위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흔들린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 칭의에서 믿음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받기만 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생명의말씀사)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